창간 제5호 ·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경제·금융 기초

오후 2시 9분 38초, 한국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었다

독일·미국·중국 이어 세계 4번째…반도체 3,968억 달러가 42.7%, 1~10월 무역흑자 2,949억 달러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0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한국의 연간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다. 1964년 1억 달러를 처음 기록한 뒤 62년 만에 1만 배가 된 숫자다.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산업통상부가 잠정 집계한 올해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선 시각이다. 연간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2006년 독일과 미국, 2007년 중국뿐이었다. 한국은 그 뒤를 잇는 네 번째 국가이자, 19년 만에 새로 이름을 올린 나라가 됐다.

출발점은 초라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홍콩으로 보낸 마른오징어와 한천, 김 같은 수산물이 첫 수출이었고 그해 수출액은 1,900만 달러였다. 1964년에야 1억 달러를 넘었고, 1977년 100억 달러를 찍었다. 그로부터 49년 뒤 1만 배가 된 셈이다.

62년 만에 1만 배

숫자만 보면 폭발적이지만, 올해의 기록은 순탄한 길에서 나오지 않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번지는, 이른바 세계무역 분절화 시기에 이뤄졌다. 기존 1조 달러 국가들이 세계 교역이 빠르게 늘던 시기에 그 고지에 올랐던 것과 결이 다르다. 산업통상부는 인구와 경제 규모, 부존자원이 모두 불리한 조건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5,100만 명의 나라가 8,000만 명의 독일, 3억4,000만 명의 미국, 14억 명의 중국과 같은 무대에 선 것이다. 연말 순위도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가 유력하다. 네덜란드도 올해 1조 달러를 넘을 전망이지만 시점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한국보다 늦다.

반도체 42.7%가 만든 숫자

기록을 끌어올린 것은 단연 반도체다. 올해 1~10월 반도체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1% 늘었다. 전체 수출의 42.7%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수요를 밀어올린 결과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HBM 83.0%, D램 65.6%다.

항목 · 수치 · 비고

1~10월 반도체 수출 · 3,968억 달러 · 전년 대비 +193.1%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 · 42.7% · 1~10월 기준

20대 주력 품목 중 증가 품목 · 16개 · 8개는 역대 최대

1~10월 무역수지 흑자 · 2,949억 달러 · 2017년 952억 달러의 3배 이상

반도체 제외 수출 증가율 · 20% · 1~10월 기준

반도체만의 성과도 아니다. 석유제품과 선박, 디스플레이 같은 기존 주력 품목이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버텼고, 화장품·농수산식품·의약품 같은 소비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컴퓨터와 철강, 비철금속, 전기기기 등도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요로 금액과 물량이 함께 늘었다. 20대 품목 가운데 16개가 늘었고, 이 가운데 8개는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역도 넓어졌다. 9대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7곳에서 수출이 늘었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정 시장과 특정 기업에만 기대지 않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흑자 2,949억 달러가 남긴 여유

수출은 숫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1~10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2,949억 달러로, 2017년에 세운 종전 최대치(952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이 흑자는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외환 건전성을 높인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청소년이 눈여겨볼 대목은 여기다. 수출이 줄면 환율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반대로 수출이 벌어들이는 달러는 이 사슬 전체를 완충한다. 지난 19일 코스피가 누적 수출 1조 달러 소식에 힘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은 숙제는 쏠림

정부도 성과 뒤의 위험을 함께 짚었다. 반도체·석유제품처럼 단가 변동이 큰 품목에 수출이 기대는 구조에서는 AI 투자 심리가 식는 순간 전체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도 변수다.

산업통상부는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의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로봇 같은 신산업을 키우며, 소비재의 해외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설계(팹리스)와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크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망은 아직 밝은 편이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설비투자가 이어지면 내년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 연간 수출이 1조3,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38%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높였다.

1조 달러는 도착점이 아니라 현재의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체력이 반도체 한 칸에만 실려 있는지, 다른 칸으로 옮겨가고 있는지가 내년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 오후 부산 신항 컨테이너 부두. 이날 한국의 연간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1. 산업통상부는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연간 누적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독일·미국(2006년), 중국(2007년)에 이어 세계 4번째이며, 19년 만에 새로 나온 1조 달러 국가다.

2. 1~10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1% 늘어난 3,968억 달러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20대 주력 품목 중 16개가 늘었고 8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2,949억 달러로 2017년(952억 달러)의 세 배를 넘었다. 다만 반도체 쏠림은 여전히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용어 한눈에 보기

무역수지 — 한 나라가 일정 기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뺀 값. 플러스면 번 돈이 쓴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주고받게 만든 메모리. AI 연산에 필수로 쓰인다.

세계무역 분절화 — 세계 교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넓어지지 않고 진영과 권역별로 나뉘는 현상. 관세와 수출 통제가 늘어날 때 나타난다.

팹리스 —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 생산은 파운드리(위탁 생산) 기업이 맡는다.

> “산업통상부는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으로 반도체·자동차·조선의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로봇 같은 신산업을 키우며, 소비재의 해외 판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
> —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앤트로픽, 111.5달러로 나스닥 문을 열었다…시총 2조 달러

공모가 83달러보다 34.3% 높은 시초가…조달액 최대 1,073억 달러로 역대 최대, 같은 날 뉴욕증시는 하락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클로드로 알려진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이 19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주당 111.5달러로 첫 거래를 시작했다. 공모가 83달러보다 34.3% 높은 가격이다.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만드는 앤트로픽이 19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다. 첫 거래 가격은 주당 111.5달러. 전날 확정된 공모가 83달러보다 34.3% 높다. 시장에서는 시초가가 100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 거래는 그 위에서 이뤄졌다.

앤트로픽은 클로드를 개발한 회사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오픈AI와 함께 가장 큰 이름 중 하나다. 2021년 설립 이후 비상장 회사로 남아 있다가 이번에 증시에 나왔다. 종목코드는 ANT다.

시초가 111.5달러, 시총 2조 달러

시초가 기준으로 앤트로픽의 시가총액은 스톡옵션과 전환사채까지 모두 포함한 완전희석 기준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증시에서 2조 달러를 넘는 기업은 손에 꼽는다.

항목 · 수치

공모가 · 83달러 (희망 범위 70~78달러 상회)

판매 주식 수 · 9억8,000만 주

조달액 · 813억 달러 (초과배정 시 최대 1,073억 달러)

시초가 · 111.5달러 (공모가 대비 +34.3%)

시초가 기준 시가총액 · 2조 달러 이상 (완전희석)

상장 시장·종목코드 · 나스닥 · ANT

813억 달러, 역대 최대 조달

이번 상장으로 앤트로픽이 확보하는 자금은 기본 813억 달러다. 주관사가 초과배정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최대 1,073억 달러까지 늘어난다. 지난 6월 스페이스X가 세운 750억 달러(초과배정 포함 857억 달러) 기록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다.

수요는 뜨거웠다. 외신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고, 배정은 미국 투자자에 편중됐다. 회사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짜는 20일이다.

상장 첫날의 온도차

문제는 시장 전체의 온도였다. 상장 첫날 앤트로픽 주가는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20% 안팎으로 줄었다. 시초가의 들뜸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같은 날 뉴욕증시도 약세였다. 한국시간 20일 새벽 2시 무렵(현지시간 19일 낮 12시 18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0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59%, 나스닥 종합지수는 1.55% 하락했다. 이후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지수는 약세권에 머물렀다.

개별 종목도 흔들렸다. 탐사보도 매체가 자사 계열 펀드의 공매도(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포지션을 공개한 뒤 AMD는 10% 급락했고, 마이크론과 브로드컴도 1~3%대 빠졌다. 5거래일 연속 내리던 엔비디아는 이날도 0.5% 하락했다. 네오클라우드로 불리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도 각각 1.2%, 4.4% 내렸다.

시장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조마허 이코노미스트는 "앤트로픽 상장이 기술주 열기를 되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며 "상장 초기 주가는 변동성이 큰 만큼 첫날 급등에 과도한 의미를 두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향후 몇 달의 주가 흐름이 투자 심리를 가늠할 시험대라는 평가다.

왜 이 상장이 중요한가

앤트로픽의 상장은 AI 기업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실제로 열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동안 AI 기업의 몸값은 비상장 시장의 투자 유치 라운드로만 매겨졌다. 이제는 매일 주가로 평가받는다. 실적과 현금 흐름이 공개되고, 투자자들이 분기마다 성적표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에도 파장이 있다. SK텔레콤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상장 이후 지분 가치가 4조 원대로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AI 인프라에 투자해 온 국내 반도체·전력기기 기업에도 관심이 옮겨붙는 흐름이다.

청소년 창업가에게 이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조금 다르다. 앤트로픽은 상장 전까지 5년 가까이 매출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투자자들이 그 시간을 견딘 이유는 기술과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장 전 투자자들이 견딘 시간의 값은 이제 분기 실적과 성장 속도로 매겨진다. 회사의 가치가 시장의 기대와 실적 사이에서 매일 다시 계산되는 무대에 선 것이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창업 스토리

경남 61개 기관이 한 줄로 섰다…'제조AX 창업도시' 공모전

창원·진주·사천 거점으로 4년 국비 600억 노린다…중기부 접수는 11월 30일 마감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0

경남도와 창원·진주·사천시, 대학·연구기관·기업·금융기관 등 61개 기관이 '경남 창업도시 추진단'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도시 공모에 뛰어들었다.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는 도와 시,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기관, 대기업, 금융·투자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이 만든 것은 '경남 창업도시 추진단'이다. 참여 기관은 모두 61곳이다.

목적은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창업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되는 것. 중기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지역으로 퍼뜨리기 위해 광역지자체 6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고, 신청서 접수는 11월 30일 마감이다.

왜 지금 '창업도시'인가

청년들이 서울로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만이 아니다. 투자자, 멘토, 실험할 수 있는 공간, 첫 고객을 만날 통로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창업도시 사업은 이 통로를 지역에 심으려는 시도다.

중기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구·대전·광주·울산 4개 광역시를 우선 지정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6곳을 더 고른다. 선정된 지역에는 4년간 국비 600억 원이 들어간다. 기업지원 440억 원, 프로그램 운영 160억 원이다.

지원 규모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을 하나의 창업 생태계로 묶어, 한 곳에서 기술을 만들고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61개 기관이 모인 이유

경남 추진단의 구성은 넓다. 경남도와 창원·진주·사천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축을 이루고, 도내 4개 대학과 9개 창업지원기관, 8개 연구기관, 10개 대·중견기업, 24개 금융·투자기관이 함께한다.

이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10대 분야 50여 개다. 4개 대학은 우주항공·방산,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 같은 특화 분야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파운더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책 연구기관은 전문가와 창업기업을 연결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는 '랩·스프린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같은 대·중견기업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창업기업 간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든다.

구분 · 내용

참여 기관 · 61개 (도·3개 시·중기청·창경센터·대학 4·창업지원기관 9·연구기관 8·기업 10·금융투자 24)

지원 분야 · 인재양성·기술지원·사업화 등 10대 분야 50여 프로그램

핵심 축 · 창원대로 중심 'G-PASS 창업대로'

목표 · 제조AX(제조업 AI 전환) 창업도시

'창업대로'라는 발상

경남의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리적 거리를 설계에 넣었다는 점이다. 창원대로를 축으로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실증시설, 산업현장을 한 줄로 연결하는 'G-PASS(Gyeongnam Physical AI Startup Scale-up) 창업대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창업기업이 겪는 가장 흔한 병목은 기술을 만들었는데 시험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공장을 세울 돈은 없고, 대기업 설비는 빌리기 어렵다. 실증시설이 도보나 차량 몇 분 거리에 모여 있으면 이 병목이 크게 줄어든다. 경남이 내세우는 우주항공·방산·원전·SMR·첨단조선은 모두 실증이 중요한 분야다.

최만림 경남도 혁신성장부지사는 "경남이 가진 제조산업·기술창업 경쟁력과 61개 참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중기부의 창업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경남을 대한민국 대표 제조AX 창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읽어야 할 부분

창업도시 공모는 지자체끼리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그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자기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첫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느냐로 갈린다.

경남의 경우 대학이 직접 창업 인재를 찾아 나서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대학이 어떤 분야에 강한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가 진로 선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12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61개 기관이 같은 목표로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 창업 생태계에는 남는 자산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식. 61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경영·전략

대기업 11곳이 중소 공장에 AI를 심는다…5년 2조 원

중기부 'AI 대전환 상생협약'…2027년 피지컬 AI 신규예산 300억 원, 오픈이노베이션 주관기관 2031년 100개사

조경용 기자

경영·전략 · 2026.11.20

중소벤처기업부가 11개 대기업, 5개 유관기관과 손잡고 중소 제조 현장에 AI를 퍼뜨리는 협약을 맺었다. 성장 단계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AI는 아직 먼 이야기다. 도입할 돈도, 다룰 사람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부족하다. 반면 대기업은 AI를 공정에 붙여 품질과 수율을 끌어올린 경험을 쌓아왔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두면 제조 경쟁력의 격차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1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연 'AI 대전환 상생협약식'은 이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11개 대기업과 5개 유관기관 대표, 중소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 갈래로 나눈 협력

협약의 구조는 단순하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대기업이 줄 수 있는 것을 정리했다.

분야 · 대기업의 역할 · 정부의 역할

개방형혁신 · 제조AI 전략과제·기술수요 발굴, 협업 인프라 제공 · 협업과제 사업화 정책·재정 지원, 2031년까지 주관기관 100개사

상생형 스마트공장 · 구축 재원 출연, 현장 AI 기술·노하우 공유 · 2027~2031년 민간과 2조 원 조성, 2,000개 이상 중소기업 지원

동반 사업전환 · AI 과제 발굴·로드맵 제시, 기술·인프라·노하우 제공 · 사업전환 계획 수립부터 이행·후속 지원, 2027년 피지컬 AI 300억 원·100개사

첫째, 개방형혁신은 창업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의 사업 수요와 연결한다. 대기업이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내놓으면 스타트업이 그 해법을 들고 오는 구조다. 중기부는 협업과제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정책과 재정으로 뒷받침하고, 주관기관 참여 규모를 2031년까지 1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둘째, 상생형 스마트공장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기반 제조 혁신으로 간다. 대기업이 재원을 출연하고 현장에서 쌓은 AI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옮긴다. 중기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민간기업과 함께 2조 원을 조성해 2,000개 이상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셋째, 동반 사업전환은 업종을 바꾸거나 신사업으로 옮겨가는 중소기업을 돕는다. 대기업이 AI 분야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협력사에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부는 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함께 지원한다.

2027년에는 피지컬 AI(로봇처럼 몸을 가진 AI) 사업전환을 위한 신규 예산 300억 원을 반영해 100개 기업을 지원한다.

왜 대기업이 나서나

행사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투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협력사의 품질이 곧 완제품의 품질이고, 협력사의 생산성이 곧 납기라는 논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에이플라는 포스코와의 개방형혁신 사업에서, 세영테크놀러지는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에서 얻은 성과를 각각 소개했다.

이소영 장관은 "AI 대전환의 혜택이 일부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제조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은 AI 활용 역량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연결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가에게 이 협약이 의미하는 것

이번 협약은 B2B(기업 간 거래) 창업가에게 영업의 통로가 하나 더 열린 일이기도 하다. 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스타트업의 해법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첫 고객을 대기업으로 삼을 기회가 커진다. 문제는 그 문턱이다. 대기업의 조달·보안·품질 기준은 창업 초기의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변수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관건이다. 스마트공장을 지어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데이터만 쌓인다. 협약이 실제 성과를 내려면 AI 도입과 함께 현장 인력의 활용 교육이 따라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AI 대전환 상생협약식'. 대기업 11곳과 유관기관 5곳이 참여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경제·테크

돈의 흐름과 도구의 변화

3면

경제·금융 기초

증권사 돈이 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지역 VC로…KB증권 20억 출자

Npay 스타트업 첫 출자 연계…모태펀드 100억 포함 154억 규모 '지역 관광 AI' 펀드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0

네이버페이의 투자 플랫폼 'Npay 스타트업'을 통해 KB증권이 울산 거점 벤처캐피털 유니스트기술지주가 만드는 펀드에 20억 원을 출자한다. 플랫폼을 거친 첫 출자 결정이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려면 보통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대표가 투자자를 직접 만나 설명하거나, 액셀러레이터·데모데이 같은 중간 통로를 거치는 것이다. 지역 기업, 특히 울산이나 경남 같은 곳에 있는 팀에게는 두 길 모두 좁다.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려면 매번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네이버페이가 운영하는 'Npay 스타트업'은 이 통로를 온라인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출범했고, 네이버페이와 코드박스가 시범 운영을 맡았다. 19일 이 플랫폼을 통해 처음으로 증권사 자금과 지역 벤처캐피털(VC)이 연결됐다.

처음 열린 통로

주인공은 KB증권과 울산에 거점을 둔 유니스트기술지주다. KB증권은 유니스트기술지주가 결성할 예정인 '지역 관광 AI 특성화 딥테크 파이오니어 벤처투자조합'에 20억 원을 출자한다.

이 펀드는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100억 원과 KB증권의 20억 원을 포함해 총 154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목적은 AI 기술로 관광 분야에 진출하는 지역 기반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다.

항목 · 내용
플랫폼 · Npay 스타트업 (네이버페이·코드박스 시범 운영)
출자자 · KB증권 20억 원
운용사 · 유니스트기술지주 (울산 거점)
펀드 규모 · 154억 원 (모태펀드 100억 원 포함)
투자 대상 · AI 기반 지역 관광 분야 초기 기업
플랫폼 참여기관 · 188곳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 증권사 8, 운용사 166 등)

KB증권은 "초기 혁신기업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 유니스트기술지주를 발굴했다"며 "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운용전략과 투자 실적, 운용 역량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바꾸는 것

이 플랫폼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는 데 있다. 투자자는 유망한 운용사를, 운용사는 출자자를, 기업은 투자자를 한 화면에서 찾는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 증권사 8곳, VC 등 운용사 166곳을 포함해 총 188개 투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두 기관이 보유한 유망기업 네트워크를 플랫폼의 투자자 네트워크와 연결했다. 보증기관이 이미 심사해 둔 기업 명단과 투자자의 관심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셈이다.

지역 창업가에게 남는 것



19일 KB증권이 온라인 투자 플랫폼을 통해 울산 거점 VC 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지역 창업가에게 이번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자금의 출발지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 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출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권사 같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이 플랫폼을 통해 지역 운용사로 흘러 들어간 것은 새로운 경로다.

다만 규모는 아직 작다. 20억 원은 펀드 전체의 13% 수준이다. 이 구조의 정착 여부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같은 큰 자금이 반복적으로 유입되는지에 달려 있다.

네이버페이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 정보 접근성과 연결 기회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창업가에게 이 기사가 주는 실용적인 팁은 하나다. 투자 유치는 실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플랫폼에 내 사업이 등록돼 있는지, 어떤 기관이 우리 지역과 분야를 보고 있는지가 실제 만남의 확률을 바꾼다. 지금은 그 지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경제·금융 기초

뉴욕증시, 하락 마감, 다우 5만선 붕괴·나스닥 2.25% 급락

다우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만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0

글로발트 인베스트먼츠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머스 마틴은 CNBC에 "오랫동안 지켜온 20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진 것은 매우 큰 기술적 신호" 라며 "추세를 따라 투자하는 자금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 여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0거래일간 주가 평균을 이은 선으로, 시장이 장기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가늠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다우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만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달 들어 모두 3% 이상 하락했다. 대형주 중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2% 하락한 7175.83에 마감했다.

다우 지수

다우 지수는 장중 고점 대비 10% 가까이 밀리며 기술적 조정 국면(직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상태) 진입을 눈앞에 뒀다.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460개 이상이 하락하며 2024년 4월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11월 제조업 지수는 6.3으로 전달보다 14포인트 이상 급락해 예상치(18)를 크게 밑돌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불가격 지수는 58.2로 15포인트 뛰어올라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 우려를 동시에 자극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가 나타나며 비트코인은 0.5% 내린 6만 1969.23달러, 이더리움은 0.3% 하락한 1756.88달러 선에서 움직였다. 장 초반 오르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메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 앤트로픽 상장 기대감에 텍사스 주 환경 당국이 데이터센터 인허가 심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나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1.5% 뛰었다.

테크·AI 트렌드

임상 한 건 없이 기업가치 66조…아이소모픽랩스, 50억 달러 조달

알파벳 계열 AI 신약설계 기업, 시리즈C 50억 달러…5월 21억 달러 이어 6개월 만의 대형 라운드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구글 딥마인드에서 분사한 AI 신약설계 기업 아이소모픽랩스가 시리즈C에서 50억 달러를 조달했다. 모든 후보물질이 전임상 단계인 기업에 대규모 자본이 몰렸다.

신약 개발의 가장 비싼 구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다. 후보물질을 찾는 데 수년, 임상에 10년 가까이 걸리고 그 사이 수천억 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보통 임상 데이터를 보고 돈을 넣는다.

아이소모픽랩스는 그 순서를 뒤집었다. 모든 신약 후보물질이 전임상 단계인데도 50억 달러를 새로 조달했다. 2021년 구글 딥마인드에서 분사한 이 회사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를 만든 데미스 허사비스가 세웠다.

6개월 만에 다시 50억 달러

아이소모픽랩스는 17일(현지시간) 시리즈C 라운드에서 5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린오크스와 세쿼이아캐피털이 공동으로 이끌었고, 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 새로 합류했다. 모회사 알파벳도 큰 규모로 후속 투자했다.

스라이브캐피털, MGX, GV, 캐피털G, 테마섹, 영국 소버린 AI 펀드 등 기존 투자자도 모두 참여했다.

항목 · 내용
라운드 · 시리즈C 50억 달러
공동 주도 · 그린오크스·세쿼이아캐피털
신규 투자자 ·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등
기존 투자자 · 알파벳·GV·캐피털G·스라이브·MGX·테마섹·영국 소버린 AI 펀드
직전 라운드 · 2026년 5월 시리즈B 21억 달러
누적 조달액 · 약 77억 달러
기업가치(외신 보도) · 약 500억 달러

이번 라운드는 올해 5월 21억 달러를 조달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2025년 3월 6억 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를 받은 것까지 합치면 세 차례 라운드 누적 조달액은 약 77억 달러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이번 라운드의 기업가치가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66조 원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 기업가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모든 후보물질이 전임상 단계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숫자다.

무엇이 비싼가

투자자들이 산 것은 특정 신약이 아니라 설계 엔진이다. 아이소모픽랩스의 플랫폼 IsoDDE는 여러 시뮬레이션 AI 모델을 하나로 묶은 약물 설계 엔진이다. 방대한 화학 공간을 탐색해 약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자를 찾아내고, 결합 구조와 물성을 예측해 후보물질을 다듬는다.

기존 신약 탐색은 수많은 화합물을 합성하고 실험하는 방식이었다. AI 기반 설계는 그 앞단에서 후보를 크게 줄인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회사는 종양학과 면역학 분야에서 긍정적인 전임상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표적이나 효능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도 실적의 일부다. 일라이릴리, 노바티스, 존슨앤드존슨과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기술을 실제 제약 개발 과정에 적용해 검증받는 통로다.

확실한 것과 아닌 것

확실한 것은 자본의 방향이다.



AI 신약설계 기업 아이소모픽랩스가 시리즈C에서 50억 달러를 조달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DS투자증권은 시장이 특정 후보물질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의 확장성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가 기술 플랫폼 기업을 넘어 자체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제약사로 확장하겠다는 방향도 이번 자금의 쓰임에서 드러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임상 결과다. AI가 설계한 후보물질도 기존 의약품과 같은 전임상과 단계별 임상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도 인체에서는 흡수·대사·독성·치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회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아직 임상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다.

이번 라운드는 AI가 후보물질 탐색을 넘어 임상 개발 단계로 확장되는 과정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신약 설계의 실질적 가치는 AI가 찾은 후보물질이 첫 임상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기자단 칼럼

실패의 문턱을 1년으로 낮춘 나라, 그다음에 남은 질문

동종 업종 재창업 불인정 3년→1년, 9월 1일부터 시행…관건은 600억 원의 집행률

조경용 기자

기자단 칼럼 · 2026.11.20

정부가 재창업의 문턱을 낮췄다. 다만 정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창업 지원은 선언보다 디테일에서 무너지는 정책이다. 창업 실패 이력이 남으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자격 자체가 막히는 구조에서는 '다시 도전하라'는 격려가 공허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고리를 푼 방식이 흥미롭다.

3년을 1년으로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9월 1일 곧바로 시행됐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업력 7년을 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문을 열었다.

근거는 현장의 숫자였다. 중기부의 202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동종 업종 재창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8개월이었다. 3년을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제도와, 11개월 만에 다시 뛰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남은 것은 숫자

19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13회째 '재도전의 날'은 규제 개편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500여 명이 참석했고, 재도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대표와 지원기관 관계자, 우수사례 입상자 등 17명이 장관상과 지원기관장상을 받았다. 재도전 기업의 투자유치대회 'Reignite IR' 결선과 재도전 펀드를 운용하는 벤처캐피털의 리버스 IR도 함께 열렸다.

행사 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예산이다.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창업 기업의 사업화와 융자 지원 예산 6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재창업자금 지원 한도도 늘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정책 발굴과 인식 개선을 총괄하는 민관 협력체 '재도전 응원본부'도 출범했다.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성과다. 600억 원이 현장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 돈을 받은 기업이 몇 곳인지, 지원 이후 생존율과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행사의 무게는 포상과 사례 공유, 투자 유치 대회에 실렸다.

왜 이 숫자가 중요한가

재창업 정책의 본질은 결국 자금 공급이다. 중기부가 규제합리화 방안에서 인용한 2025년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에서 창업가들이 꼽은 최우선 정부 과제는 자금 확보와 투자 활성화, 규제 완화, 인수합병·기업공개 활성화 지원 순이었다. 재도전 지원도 이 순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책이 작동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집행됐는지 보면 된다. 집행률이 낮으면 창구가 좁다는 뜻이고, 특정 지역·업종에만 몰리면 접근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은 정책이 '버티게' 했는지 '성장하게' 했는지를 가른다.

두 번째 관문

규제 완화의 큰 틀은 잡혔지만 세부 일정은 아직 남아 있다.



19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13회째 '재도전의 날'.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재기 노력 중심으로 바꾸는 특례의 범부처 확대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법인 대표자의 경력을 입증하는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 신설과 개인사업자의 이종 업종 창업을 지원 대상에 넓게 포함하는 추가 시행령 개정도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재도전 펀드의 규모와 누적 투자 실적도 공개되지 않았다. 재창업 기업의 젖줄 역할을 해야 할 민간 자본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문턱을 낮추는 일은 법령 개정으로 끝난다. 하지만 실패한 창업가가 실제로 다시 문을 열고, 다시 고객을 만나고, 다시 투자를 받는 일은 그 뒤에 벌어진다. 1년이라는 숫자의 무게는 그 1년 동안 무엇이 제공됐는지를 기록하는 일에서 갈린다. 13회째를 맞은 행사에서 다음 회차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표창 명단이 아니라 집행률 표다.

기자단 칼럼

AI가 답을 대신하는 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은 이유

소크라테스 튜터 실험 400명, 오류 64% 스스로 해결…개인화 설명은 일반 설명보다 낫지 않았다

조경용 기자

기자단 칼럼 · 2026.11.20

생성형 AI를 학습에 쓰는 학생이 늘었지만, 성적이 함께 오르지는 않았다. 최근 실험들은 그 이유를 AI의 성능이 아니라 대화의 구조에서 찾는다.

요즘 교실에서 가장 흔한 장면은 학생이 노트북을 열고 문제를 AI에게 붙여 넣는 것이다. 답은 3초 만에 나온다. 그런데 시험지 위의 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11월에 공개된 두 실험이 이 간극을 설명한다. 하나는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등록 온라인 실험이다. 참가자들은 제약 조건 방정식을 세우는 과제를 풀고, 오답이 나오면 네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 정답만 보기, 일반적인 설명 듣기, 자신의 오답에 맞춘 개인화 설명 듣기, 그리고 튜터와 대화하며 스스로 고치기다.

설명을 잘하는 AI보다 되묻는 AI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소크라테스식으로 되묻는 튜터를 만난 참가자는 자신의 오류 가운데 64%를 대화 안에서 스스로 해결했다. 연습과 정렬된 사후 문제에서의 성과는 다른 집단보다 0.24 표준편차 높았다. 반면 개인화된 설명은 일반 설명보다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두 설명 모두 정답만 본 집단을 확실히 앞서지도 못했다.

흥미로운 것은 참가자들의 반응이다. 소크라테스 집단은 시간이 거의 두 배 걸렸는데도 세션을 더 흥미롭고 덜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느낀 비율도 높았다. AI가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힌 지점에서 개입해 스스로 풀게 만드는 방식이 학습과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린 셈이다.

강사가 설계한 AI

두 번째는 규모가 다른 실험이다. 19개 대학 7,200명을 세 학기 동안 관찰한 사전등록 무작위 대조에서, 강사가 직접 설계한 AI를 쓴 수업의 학습 성과는 0.32 표준편차 높았다. 측정은 AI가 개입할 수 없는, 감독관이 지켜보는 필기시험으로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누가 설계했는가'다. 실험에 쓰인 AI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범용 챗봇이 아니라, 그 과목의 교수가 자기 수업에 맞춰 만든 도구였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을지, 어디서 멈추고 학생에게 물을지를 교수가 정했다.

같은 도구, 다른 결과

세 번째 근거는 메타분석이다. 2023~2026년에 발표된 제2언어 학습 통제연구 48편, 효과크기 67개를 묶은 결과 전체 효과크기는 0.76이었다. 그런데 설계별로 나누면 그림이 달라진다. 학생 주도 상호작용은 0.92, 공동 창작은 0.82였지만 AI 주도 방식은 0.34에 그쳤다. 피드백과 평가 역할을 맡겼을 때는 1.15로 가장 컸다.

같은 AI를 쓰더라도 학생이 질문하고 고치고 설명하는 자리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갈랐다는 뜻이다. AI가 먼저 답을 정리해 주는 구조에서는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남는 질문

이 연구들이 말하는 것은 'AI를 쓰지 말라'가 아니다. 이미 쓰고 있고, 앞으로 더 쓰게 될 도구다. 문제는 사용의 형태다.

첫째, 답을 받는 시간보다 틀린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학습을 만든다. AI에게 "정답 알려줘"라고 묻는 대신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물어봐 줘"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대화의 구조가 바뀐다.



AI 튜터와의 대화 방식이 학습 성과를 갈랐다는 실험 결과가 잇따라 공개됐다.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둘째, AI가 만든 설명의 정교함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보다, 스스로 고칠 기회를 남기는 설계가 성과에 더 가까웠다.

셋째, 교사의 역할은 줄지 않는다. 19개 대학 실험에서 성과를 만든 것은 최신 모델이 아니라, 자기 수업을 이해하는 교수가 설계한 도구였다. AI는 수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설계의 재료가 된다.

학습 도구 시장은 매년 새 모델을 내놓는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공개된 연구들이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사용의 구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설계된 대화다.

테크·AI 트렌드

삼성전기·LG이노텍, 풀가동에도 이익은 2.7배 차이, 'AI 반도체 기판' 비중이 성적표 갈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삼성전기 72%, LG이노텍 76.7%)과 비교하면 삼성전기는 18%포인트(p), LG이노텍은 17.7%p 뛰며 사실상 완전 가동 상태에 들어섰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삼성전기·LG이노텍, 풀가동에도 이익은 2.7배 차이AI 반도체 기판 비중이 성적표 갈랐다 가동률은 LG이노텍, 영업이익은 삼성전기가 2.7배 삼성전기 고객 수요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기판 생산라인이 모두 90%대로 풀가동되고 있지만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기가 3694억원으로 LG이노텍(1357억원)의 약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까지 누적 기판 생산라인 평균 가동률은 삼성전기 90%, LG이노텍 94.4%로 집계됐다. 가동률만 보면 LG이노텍이 앞서지만 같은 기간 기판 사업에서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삼성전기 3694억원, LG이노텍 1357억원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삼성전기 72%, LG이노텍 76.7%)과 비교하면 삼성전기는 18%포인트(p), LG이노텍은 17.7%p 뛰며 사실상 완전 가동 상태에 들어섰다.

3분기 단독 기판 매출도 삼성전기가 9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난 반면, LG이노텍은 4818억원으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누적 기판 매출

구분 · %

상반기 · 10.7

9월 · 9.6

올해 9월까지 누적 기판 매출은 1조41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2% 늘었지만, 기판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10.7%에서 1~9월 누적 9.6%로 낮아졌다.

삼성전기는 6조8000억원을 들여 세종·부산·베트남에 AI용 기판 라인을 늘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산하고 2028년부터 매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LG이노텍은 1~9월 누적 매출에서 기판 비중이 8%대에 그치고, 애플로 추정되는 단일 고객사 매출 비중이 80.4%에 달한다. 상반기 설비투자는 삼성전기 902억원, LG이노텍 336억원으로 추정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기판 비중이 큰 삼성전기가 같은 가동률에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둔 반면 스마트폰용 기판 비중이 높은 LG이노텍은 더 높은 가동률에도 상대적으로 수익 규모가 적었다는 분석이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